

지속성장하는 비스킷 시장

말레이시아사무소

달콤한 비스킷을 좋아하는 말레이시아인

- 과자를 즐겨 찾는 말레이시아인들은 특히 달콤한 종류의 비스킷을 좋아한다. 아침식사 대용 혹은 차와 함께 곁들이는 간식으로 비스킷을 주로 찾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비스킷은 중요한 식품이라 할 수 있다.
- 2017년도 말레이시아 비스킷(Sweet biscuits, snack bars and fruit snacks) 시장은 새로운 제품 출시와 가격 프로모션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설탕 가격 상승과 통화 약세로 인해 4%의 성장에 머물렀다.

- 초콜릿 코팅 제품들은 2022년까지 연평균 8% 수준의 빠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인기 브랜드인 빼빼로는 유통업체와의 견고한 관계를 바탕으로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16년 유통업체를 교체한 Pocky는 TV광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광범위한 유통과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장 빠른 성장세 보이는 초콜릿 코팅 비스킷

- 전체 비스킷 시장에서 초콜릿 코팅 비스킷 류가 유독 소비자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7년에는 무려 1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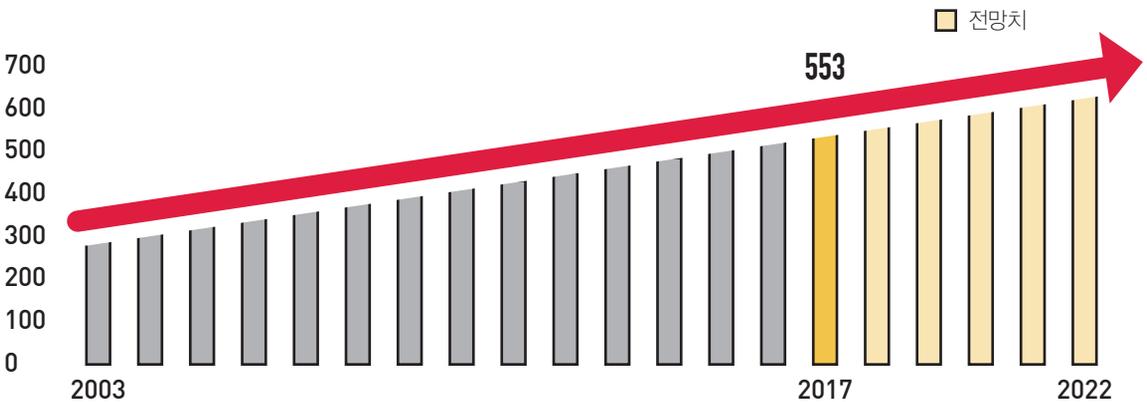
(왼쪽부터)

롯데제과의 빼빼로, 글리코의 Pocky



말레이시아 비스킷 매출액 (2003-2022)

(단위: 백만 링기트, MYR million)



출처 : "SWEET BISCUITS, SNACK BARS AND FRUIT SNACKS IN MAALYSIA", Eromonitor International, July 2017



건강에 주목하는 소비자들

- 최근에는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되어가며 건강한 재료가 첨가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영양성분이 강화된 비스킷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 바쁜 현대인들의 아침식사 대용식 컨셉트로 출시된 Belvita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한 통곡물 과자 컨셉트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Quaker는 철분과 칼슘이 함유된 아침식사 대용 초콜릿칩 통곡물 쿠키를 선보이고 있다. 도시 생활을 하는 현대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격적 마케팅과 건강한 제품 개발 필요

- 비스킷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아이템이므로 앞으로도 꾸준한 수요가 예상되는 시장이다.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초콜릿 코팅제품은 유통

체인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판촉이 매출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이러한 공격적인 제품 홍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무설탕이나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휴대하기 쉬운 소형포장의 제품을 개발한다면 말레이시아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Quaker
Breakfast Cookies
오트밀 초콜릿칩 맛,
오트밀 건포도 맛



출처 : "SWEET BISCUITS, SNACK BARS AND FRUIT SNACKS IN MAALYSIA", Eromonitor International (2017. 7)
 "AFGC MARKET INSIGHTS: MALAYSIA", Australian Food and Grocery Council (2016)
brucebradley.com, www.lotteconf.co.kr, www.glico.com/jp/, www.facebook.com/belVita, www.quakeroats.com